제1회 인천국제해양포럼 축사

'20. 11. 19.(목) 10:00 / 송도 컨벤시아

수정4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바다의 도시,
인천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장 박남춘입니다.

"뉴 노멀시대, 해양산업의 새로운 시작" 을 주제로
'제1회 인천국제해양포럼' 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이 있기까지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해 주신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님과 박준영 차관님,
최용규 기획위원장님,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사장님 및 모든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포럼의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탄총멩 PSA 인터내셔널 대표님,
디클레브 블리처 머스크 아태지역 대표님,
배재훈 HMM 대표이사 사장님을 비롯하여
발제 및 토론을 맡아주실
세계 최고의 기업과 전문가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동북아 물류와 남북평화의 중심도시입니다.
1883년 개항 이후 세계와 조선을 잇던
제물포라는 작은 마을에서 출발해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을 모두 가진
동북아시아의 핵심 국제무역거점으로 성장한 곳이
바로 인천입니다.

강화-신도 간 평화도로 건설,
인천~남포 간 정기 화물선 운항 준비 등을 통해
평화의 한반도 시대,
평화의 서해 바다를 꿈꾸고 있는 곳 또한 인천입니다.

인천은 아름다운 해양생태계 자원을 보유한 도시입니다.
보석같이 자리 잡은 168개의 아름다운 섬과 갯벌이
천혜의 해양관광자원이자 해양생태계의 보고로서
아름다움과 다채로움을 선사하는 곳 역시 인천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난과 극복, 과거와 현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이곳 인천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코로나 이후 해양산업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해양의 활용과 보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해양도시로서의 인천의 입지는 날로 탄탄해지고 있습니다.
동북아 최고의 해양관광 중심기지가 되기 위해
작년 4월 인천항에
국내 최대의 크루즈 전용 터미널을 개장하였고,
올해 6월에는 중국과 인천의 바닷길을 잇는
새로운 관문, 신국제여객터미널을 개장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공공주도의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갈등과 대립의 상징이었던 해안선 철책 제거 등을 통해
군(軍), 관(官)이 차지하던 공간들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 착공할 스마트 선박안전센터는
해양안전도시로서의 인천의 위상을 높일 것입니다.

이처럼 인천은 바다와 함께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다를 제대로 보전하지 못한다면
바다는 생명력을 잃고 침묵의 바다,
인류를 위협하는 바다가 될 지도 모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경제와 생활방식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양산업 역시 새로운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의 인내와 노력 끝에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었고,
고비라고 여겨졌던 해양산업도 회복기에 접어들었다는
희망찬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보다 더 크고, 피할 수 없는
‘기후변화’ 위기가 우리 앞에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 뉴노멀 해양산업 정책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세계 주요 도시의 3분의 2가 해안에 위치하는 만큼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이로 인한 태풍, 해일, 폭우, 가뭄 등 각종 기상 이변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인천을 비롯한 해안 도시부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쓰레기섬과 미세플라스틱 문제 역시
수산자원의 고갈은 물론,
인류의 생명과 건강에 크나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포럼을 계기로 이러한 해양환경 문제에 대해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환경부 등 관계부처,
서울, 경기, 인천, 충남 등 서해안을 축으로 하는
지방정부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인류가 바다를 계속해서 활용하고
또 바다와 인류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다른 논의와 대처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 세대의 책임을 미래로 넘길 것이 아니라
현 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한국판 뉴딜의 방향에 맞춰
해양산업에 있어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포럼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새로운 방향에 대해 깊이 토론하고,
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뉴노멀 시대, 해양산업의 새로운 시작」을 여는
제1회 인천국제해양포럼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해양산업의 발전과
인류와 바다의 공존을 논의하는
역사적인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 **미세플라스틱 및 해양쓰레기 관련 현황·정책**

□ 미세플라스틱* 현황

* 미국 해양대기청(NOAA)에 따르면, 지름 5㎜ 미만의 입자를 미세플라스틱으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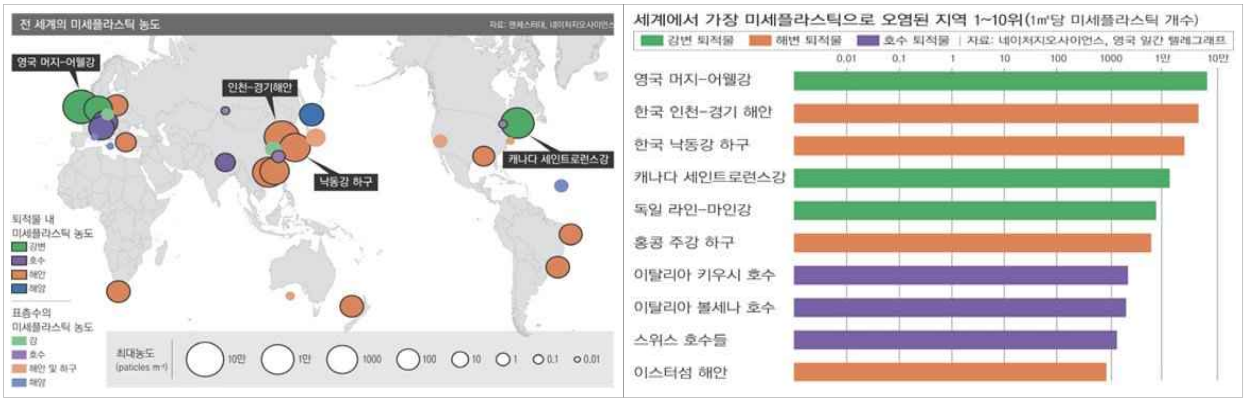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패류 4종 대상 미세플라스틱 오염도 조사(2017)

- 패류 속살 100g 기준 바지락 34개, 담치 12개, 굴/가리비 소량 검출

○ (영국 맨체스터대학) 세계에서 미세플라스틱으로 가장 많이 오염된 지역 발표(네이처 지오사이언스지, 2018.3월)

- 한국 미세플라스틱 농도는 세계 상위권*이며, 1㎡당 평균 미세플라스틱 개수는 1만~10만개 사이로 조사됨

  * 영국 북서부 머지강과 어웰강(1위) > **인천·경기 해안(2위)** > **낙동강 하구(3위)** > 캐나다 세인트로런스강(4위) > 독일 라인강 지류의 마인강(5위)



- 주로 강의 퇴적물에서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높고, 고도로 도시화된 곳이 포함된 강변과 해변 지역에서 나타남

○ (인천 보건환경연구원) 지방정부 최초 인천연안 미세플라스틱 조사(2019.8월)

- 인천 앞바다 중 세어도 해역의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가장 심각함*

  * 세어도 해역(2.74개/㎥) > 영종대교 해역(2.16개/㎥) > 인천신항 해역(1.97개/㎥) > 자월도 해역(1.28개/㎥) > 덕적도 해역(1.24개/㎥)

- 인천연안의 미세플라스틱은 해양 내 오염보다 육지 담수에 의한 오염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됨*

  * 한강담수의 영향이 가까운 지점부터 먼 지점 순, 하절기 집중 강우 직후, 각 지점의 표층에서 미세플라스틱 출현 급증

□ 해양쓰레기 관련 정부와 인천시 정책

○ (해양수산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30% 감축을 위한 全주기 관리

- 발생 : 폐어구 집하장* 등 수거체계 인프라 구축 및 어구관리 선진화

  * (2019) 9개소, 4.5억원(국비 100%) → (2020) 40개소, 14억원(국비 70%)

- 수거 : 바다환경지킴이 확대(1,000명), 정화운반선(7척) 보급, 어구일제회수 제도* 등을 통한 수거 역량 강화

  * 지역어업인 참여 폐어구 일제회수 시범사업(인천 장봉도) 및 법제화(수산업법 개정)

- 처리 : 폐스티로폼 압축기(2대)와 권역별 前처리시설(2곳) 보급 및 생산자 재활용 의무 부여 등 처리·재활용 활성화

○ (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및 해양생태계 보전·관리사업 추진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비(2021) : 약 99억 원 확보(환경부/해수부 지원)

사 업 명	주체	사업개요	2021년 예산(억원)				비 고
			계	국비	시비	군구비	
		합계	**98.77**	**33.5**	**60.13**	**5.12**	
환경부 소관			**76.57**	**21.57**	**55**		
해안쓰레기 정화사업	5개군구	해안가 공공근로	60	16.8	43.2		3개 시·도 분담금
침적쓰레기 정화사업	4개군구	조업중 인양	7	2	5		〃
부유쓰레기 정화사업	강화군	부유차단막설치	3.5	1	2.5		〃
해양환경정화선 운영	시본청	부유쓰레기 수거	5.87	1.57	4.3		〃
해수부 소관			**21.2**	**11.93**	**4.63**	**4.62**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2개군구	폐그물 수거	12	6	3	3	'20년도 신규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사업	옹진군	집하장 설치	3	2.1	0.45	0.45	'21년도 신규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사업	옹진군	집하장 쓰레기 처리	1.8	0.9	0.45	0.45	'21년도 신규
폐스티폼 감용기* 지원사업	옹진군	폐스티로폼 처리	2.5	2	0.25	0.25	'21년도 신규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옹진군	인건비 지원	1.9	0.93	0.48	0.47	'20년도 신규
인천광역시 소관			**1**	**-**	**0.5**	**0.5**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강화군	쓰레기 수매	1	-	0.5	0.5	'18년 주민참여예산

□ 향후 발전방향

○ (공감대 형성) 해양환경 문제의 심각성 인식 및 서해안권 지방정부간 협력체계를 통한 협의체 구성

○ (연계협력사업) 서해안권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한 공동협력사업* 추진

  * 초광역협력프로젝트,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등 공동협력사업 제안